

요엘서와 라오디게아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 제10호

Jeff Pippenger

2025-12-14

숫자 10

우리는 이사야의 환상 가운데 7장에서 시작해 12장 끝까지 이어지는 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1850년에 “주께서 그의 손을 두 번째로 펴셔서 모으시려고” 그의 남은 백성을 모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844년부터 1863년까지의 이정표들을 제자리에 세우고 있습니다. ‘1850’과 두 번째 모으심은 그 이정표들 중 하나입니다.

이사야의 환상이 7장 1절에서 시작되면, ‘그 날에’와 비슷한 표현이 나타날 때마다 그것은 7장에 이미 설정된 예언적 문맥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 환상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핵심은 예언이 반복과 확대의 원리에 따라 작동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며, 이 원리가 그 환상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 장에서 시작되는 이사야의 환상 속에서 식별되는 여러 예언적 진리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사야가 9/11 때 기름 부음을 받아 늦은 비가 임했음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한 영혼을 대표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 성별된 맥락에서, 이사야 7장은 선지자가 6장에서 제기한 바로 그 두려움을 보여 준다. 곧, ‘눈이 있어도 보기를 거부하고 귀가 있어도 듣기를 거부하는’ 배교한 교회에 9/11의 메시지를 얼마나 오래 전해야 하는가 하고 그가 ‘얼마나 오래’라고 물었을 때 드러난 두려움이다.

그 이상에서 악하고 어리석은 아하스 왕은, 이사야와 그의 아들들로 대표되는 파수꾼들이 아하스에게 맞서 전하는 늦은 비 기별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라오디게아인을 상징한다.

9/11은 다니엘 11장 40절의 예언적 역사 속에 도래했으며, 그러므로 이사야가 6장에서 9/11에 위치될 때 그는 예언적으로 다니엘 11장 40절 안에 위치하게 된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 그는 ‘40절의 감추어진 역사’ 안에 위치한다. ‘40절의 감추어진 역사’는 1989년 소련의 붕괴로 그 절이 성취될 때 시작되었다. 1989년부터 41절의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가 바로 그 ‘감추어진 역사’ 속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가 봉인을 떼어 드러내는 ‘40절의 감추어진 역사’이다. 이것이 9/11 이후 이사야가 늦은 비의 사자를 대표한다고 우리가 고찰할 때 드러나는 바는,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늦은 비의 메시지 가운데 한 부분이—다니엘 11장 41절부터 45절이라는 것이다.

이사야 10장에서, 9/11에 예언적으로 서 있는 이사야는 다음에 일어날 사건이 ‘불의한 칙령’, 즉 일요일 법령이며, 이것이 다니엘서 11장 41절에 나타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사야가 그리는 늦은비 기별의 묘사는 40절의 ‘숨겨진 역사’, 곧 9/11 이후의 부분 안에 자리한다. 1989년에 40절이 성취되었으므로, 이사야는 1989년 이후, 곧 제단에서 가져온 숫으로 기름부음을 받는 9/11에 놓이게 된다. 이사야는 다니엘서 11장의 마지막 여섯

절을 포함한 기별을 가진 사자를 대표한다.

이사야는 자신과 그의 자녀들이 표적과 기사를 위한 존재라고 분명히 말한다. 7장 3절에서 이사야와 그의 아들은 세탁자의 밭 큰길 곁에 있는 윗못의 수로가에 있다. 이사야는 6장에서 선포하라고 기름부음을 받은 늦은 비의 기별을 전하고 있으며, 그의 아들 스알야습과 함께 늦은 비의 세 가지 상징 곁에 서 있다. 윗못의 수로는 스가랴가 지목하고 화이트 자매가 자주 언급하는 금 기름으로 채워진 두 관에 대한 예언적 암시이며, 그 두 관은 늦은 비의 기별에서 윗못의 수로로부터 나오는 기별을 식별하게 한다.

이사야서의 수로는 스가랴서의 두 관과 연결되고, 엘렌 화이트의 주석은 스가랴서를 열 처녀의 비유와 결부시킨다. 이사야는 6장에서 주의 영광을 보았을 때 티끌에 엎드려 겸비해진다. 그는 3절에 나타난 메시지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땅을 밝히는 메시지로서 전하기로 수락한다. 그리고 그는 제단에서 가져온 숯불로 정결하게 된 후, 윗못에서 흘러나온 물이 만들어낸 못가에 서 있다. 28장에서 이사야는 늦은 비의 메시지를 '줄에 줄을 더함'으로 정의하고, 3절에서 윗못은 여러 예언의 줄기를 상징한다.

9/11의 시점에서 한 영혼을 대표하는 이사야는, 그 영혼이 예레미야의 옛 길로 이끄는 선한 길을 구했을 때에만, 윗못에서 금빛 기름이 내려오는 곳에 서게 될 것이다. 그 옛 길은 예레미야의 "안식"이 발견되는 곳인, 이사야의 "빨래하는 자의 밭 곁의 대로(길)"이다. 이사야의 늦은비 기별은 열 처녀의 선, 스가랴의 두 금관의 선, 예레미야의 옛 길의 선에만 기초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사자가 레위의 아들들을 은과 금처럼 정결케 하고 정련하는 "빨래하는 자의 밭"에 이사야가 또한 서 있다.

다른 계통의 말씀들을 7장 3절 안으로 가져오는 것은 예언적으로 매우 쉬운 과업이다. 스가랴의 기름과 열 처녀는 야곱의 사닥다리 및 요한계시록의 첫 두 절과 연결되는데, 이는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소통 과정에 관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레미야의 옛 길에는, 악하고 어리석은 아하스 왕이 듣기를 거부하는 나팔을 부는 "파수꾼"이 포함되어 있다. 그 나팔은 예언의 모든 나팔들과 더불어 예언적 파수꾼들을 이사야의 "대로"로 이끌어 들이는데, 그곳에서 이사야와 그의 아들이 라오디게아의 지도자에게 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서 있다.

이사야와 그의 아들 스알야습('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라는 뜻)은 함께 서서 9/11에 도래한 늦은 비 메시지의 선포를 보여 주고 있다. 그들은 악한 왕 아하스를 만나러 가며, 아버지와 아들로서 '줄 위에 줄' 방법론의 기본 규칙인 알파와 오메가라는 상징을 나타낸다. '줄 위에 줄'은 밀러파의 '일/년' 원칙에 의해 예표된 규칙이다.

1840년 8월 11일, 요한계시록 9장의 둘째 화에 관한 이슬람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밀러파의 '일/년' 원칙이 입증되어, 그 원칙에 근거한 밀러의 1843년에 대한 예언을 뒷받침하였다. 2001년 9월 11일에는 요한계시록 9장, 10장, 11장의 셋째 화에 관한 이슬람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알파(1840-08-11)와 오메가(9/11)의 원칙이 입증되었으며, 뉴욕의 거대한 건물들이 무너질 때 요한계시록 18장의 힘센 천사가 내려왔다—오메가를 예표하던 알파가 성취되었던 1840년 8월 11일에 요한계시록 10장의 힘센 천사가 내려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사야와 그의 아들은 'line upon line'의 기본 원칙을 나타낼 뿐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묘사되는 메시지인 엘리야 메시지를 대표한다.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 직전에 선포되는 엘리야 메시지는, 하나님의 집행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도착하는 메시지를 가리킨다. 하나님의 집행 심판은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한 기간을 가리킨다. 그 기간은 주일법에서 시작하여 일곱 마지막 재앙까지 이어진다. 그 기간은 주일법으로 시작하여 일곱 마지막 재앙으로 끝난다. 그러므로 엘리야 메시지는 알파와 오메가의 원리에 기초하며, 은혜의 시간의 마감에 다가옴을 경고하는 내용과 결합되어 있다. 엘리야의 메시지와 함께 엘리야를 토대로 한 여러 예언적 흐름들도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대표하고, 화잇 자매에 따르면 엘리야와 요한은 모두 윌리엄 밀러를 대표한다. 그리고 엘리야와 세례 요한은 함께, 엘리야는 십사만 사천을, 요한은 요한계시록 7장의 큰 무리를 각각 대표한다.

이사야와 그의 아들은 터가 되는 옛길에 서서 황금 기름을 받고 있다. 그들은 1844년 10월 22일에 성취되어 일요일 법령을 예표한, 표백하는 자의 정결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이기 때문이다. 이사야와 돌아오는 남은 자들(이는 그의 아들 스알야숲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이기도 하다)은 9/11에 옛길로 "돌아오는" 남은 자를 대표한다. 아버지와 남은 자의 관계, 곧 알파와 오메가의 관계이자 엘리야의 "아버지들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의 관계는, 밀러 아버지와 첫째 천사의 남은 자 운동과의 관계가 빌라델비아의 알파 운동이었음을 드러낸다. 알파 운동에서 밀러 아버지는 엘리야이자 세례 요한으로 식별되었는데,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을 언약의 사자의 길을 예비한 사자로 규정하셨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알파 역사에서의 모든 예언적 성취는 셋째 천사의 오메가 역사에서 반복된다.

환상 가운데 이사야가 제시한 예증에 대해 더 중요한 사실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이사야가 9/11의 늦은 비 기별의 핵심을 이루는 다양한 진리들을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있음을 단순히 확인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방금 논의한 이 모든 내용과 물론 그 외의 더 많은 것들이 7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서 예언적 진리는 "40절의 숨겨진 역사"를 여는 열쇠를 밝혀 주면서 더욱 강화되며, 놀랍게도 그 열쇠는 두 개의 2520년 시간 예언의 시작이 표시되어 있는 바로 그 동일한 절 안에서 확인된다.

시리아의 머리는 다마스쿠스이고, 다마스쿠스의 머리는 르신이다. 그리고 육십오 년 안에 에브라임이 무너져 더 이상 백성이 되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랴의 아들이다.

너희가 만일 믿지 아니하면, 정녕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 7:8, 9.

이사야의 늦은비 기별에 대한 묘사에는 모세의 '일곱 때'가 포함되는데, 이는 8절의 65년 예언이 이스라엘의 북왕국과 남왕국 모두의 2520년 흠어짐의 시작점을 지목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 같은 절에서, 1989년 소련의 붕괴를 다루는 다니엘 11장 40절과 다니엘 11장 10절, 그리고 이사야 8장 8절이라는 세 예언적 선을 맞물리게 하는 열쇠가 제시된다. 이 세 개의 선(이사야 8:8, 다니엘 11:10, 40)을 여는 열쇠는 8절과 9절의 "머리들"이다. "머리들"의 열쇠를 그 세 평행 구절에 적용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역사와 곧 다가올 제3차 세계대전으로 통하는 문이 열린다. 그 예언의 문이 열리면, 다니엘 11장

11절부터 16절이 1989년 소련 붕괴 이후의 다니엘 11장 40절과 평행하는 역사로 보이게 된다. "40절의 숨겨진 역사"가 열리는 것은, 은혜의 시한이 닫히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봉인이 풀리는 일과 연결되어 봉인이 풀리는 것으로 식별되는 소수의 진리 가운데 하나이다.

이사야 8장 1절은 '더구나'라는 말로 시작하며, 8장이 7장 위에 포개어 읽어야 함을 보여 준다. 첫 단어가 '더구나'라는 것 외에도, 8장 3절은 7장 3절과 연결되어 두 장이 '줄 위에 줄'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두 번째 증거가 된다. 두 장의 3절 모두 이사야의 아들 중 한 명을 지목하는데, 그들의 이름이 모두 이야기 속의 예언적 메시지를 말해 준다. 스알야습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이고, 마헬살랄하스바스는 '빨리 노략함'이라는 뜻이다. 먼저 스알야습이 언급되고, 그다음에 마헬살랄하스바스(성경에서 가장 긴 이름)가 언급된다. '1'로 표현된 알파는 더 작고, 이 경우에는 '남은 자'로까지 규정되며, '22'로 표현된 오메가는 더 크고, 성경에서 가장 긴 이름으로 나타나면서 일요일 법령의 급속한 움직임을 상징한다.

스알야습으로 대표되는 알파의 남은 자는 3절에서 그의 아버지 이사야와 함께 있다. 그들은 함께 알파와 오메가이며, 늦은 비에 대한 세 가지 분명한 언급으로 이루어진 장소에 서 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습은 지금 나아가 세탁하는 자의 밭 큰길에 있는 윗못 수로의 끝에서 아하스를 만나라. 이사야 7:3.

이사야는 14만 4천의 상징이며, 9/11의 부르심을 대표함으로써 2023년 7월의 부르심도 대표한다. 9/11에서 이사야는 라오디게아 교인으로, '빠앗는 자' 야곱으로 대표되는데, 주님께서 재림운동을 입에서 토하여 내치실 때 그는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으려 한다. 그리고 2023년에 이사야는 이긴 자 이스라엘을 대표한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던 자가 자신이 라오디게아 상태임을 깨닫고, 이어 솟으로 정결케 되어 빌라델비아 교인이 되는 것을 대표한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나심을 보았고, 그분의 위엄을 뵈 뒤엔 어떤 일을 하러 가라는 기별을 받았다. 그는 그 일에 자신이 전혀 합당하지 않다고 느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자신을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게 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부터 자신을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는가? 아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로운 상태에 있다고 여겼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고, 그가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위엄을 뵈었을 때, 이렇게 말했다. "화로다 나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주하면서 내 눈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음이다." 그때 스랍들 중 하나가 제단에서 집게로 집어 온 살아 있는 숯불을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말하였다. "보라, 이것이 네 입술에 닿았으니 네 죄악이 떠나갔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우리는 제단에서 가져온 살아 있는 숯불이 우리의 입술에 놓이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네 죄악이 떠나갔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리뷰 앤드 헤럴드, 1889년 6월 4일.

이사야 6장의 '언제까지입니까'는 9/11에서 주일법에 이르기까지의 상징이며, 6장은 9/11을 표상한다. 7장부터 9장까지는 이사야가 유다의 배도한 지도부에게 전한 메시지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이 비틀거질 때, 곧 14만 4천이 인침받는 때에 일어나는 묘사를 제시한다. 같은 환상 속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한다:

보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나와 자녀들은 이스라엘에서 시온 산에 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온 표징과 기적이니라. 이사야 8:18.

이사야와 그의 자녀들은 7장부터 9장에 나오는 수수께끼들 속에서 표징이다. 7장부터 9장은 전체 환상에서 "그 날"이나 "그 때"에 대한 모든 언급의 기준점이 된다. 18절은 이사야와 그의 아들들이 표징임을 밝히고, 18절을 둘러싼 구절들은 그 표징들이 인식되어야 할 시기를 가리킨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며, 부서지며, 울무에 걸려 붙잡히리라. 증거를 싸매고,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인하라. 나는 야곱의 집에서 그의 얼굴을 숨기시는 주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나와 자녀들은 이스라엘에서 표적과 기사가 되었나니, 시온 산에 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 이사야 8:15-18.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이사야와 그의 두 아들로 대표된다. 그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그의 얼굴"을 숨기셨던 자들이며, 이는 2023년 7월 이후 레위기 26장의 기도가 요구하는 바에 눈뜬 자들의 특징이다. 그들은 자신의 고백에 주께서 자신들에게 대적하여 행하셨다는 내용, 곧 그분이 그들에게 얼굴을 숨기셨다는 사실이 포함되어야 함을 깨닫는다.

'증거를 싸매고 율법을 봉하라'는 것은 '많은 이들'과 대조되는 십사만 사천을 인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은 부름을 받되 택함받은 이는 적다. 많은 이들은 소수로 대표되는 이사야와 그의 두 아들과 대조된다. '많은 이들'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이며 이 때문에 그들에게 다섯 가지 일이 일어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넘어지고, 부서지고, 울무에 걸리고, 사로잡힌다.' 그들이 비틀거리는 것은 늦은 비의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는 더듬거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가 피곤한 자를 쉬게 할 안식이고, 이것이 새롭게 함이다' 하셨으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호와와 말씀은 그들에게 교훈 위에 교훈, 교훈 위에 교훈; 한 줄 위에 또 한 줄, 한 줄 위에 또 한 줄; 여기 조금, 저기 조금이 되어, 그들이 가서 뒤로 넘어져 부서지고 울무에 걸려 사로잡히게 하려 하심이었다. 이사야 28:11-13.

이사야서 8장의 인치는 때에 이사야는 아하스로 표상된 악인의 몰락을 묘사하며, 같은 무리를 28장 13절에서도 지목한다. 그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줄에 줄을 더하는' 것으로 보였고 더듬는 입술을 가진 자들로 표상된 사람들이 전한 늦은 비의 메시지를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이다. 오순절에 트집을 잡던 유대인들은 그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해 제자들이 술에 취했다고 몰아붙였다. 그들 생각에는 그것이 더듬는 입술로 전해지는 것으로 보였다.

7장 3절에서, 이사야는 그의 아들 스알야습에게 예언적 알파이며, 스알야습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오메가이지만 형제와의 관계에서는 알파이다. 알파와 오메가의 대표로서 그들은 하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두 개의 금빛 관로가 못을 이루는 곳, 곧 예레미야의 옛 길의 큰길 바로 곁, 아마포가 얼룩에서 순백으로 바뀌는 들판에 서 있다. 그곳에서 그는 악하고 어리석은 왕 아하스에게 모세의 옛 길의 메시지, 곧 레위기 26장의 '일곱 배'를 전하는데, 같은 절에서 '머리'가 왕, 또는 그 왕의 왕국, 또는 왕국의 수도를 뜻함을 밝힌다.

그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밝혀, 2014년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십사만 사천 명이 인침을 받는 때와 미국의 최근 세 대통령의 역사 시기에 일어나는 것으로 표상된 성경 예언의 주제로 보이게 한다. 늦은 비의 메시지는 이사야서 10장과 11장에서 표상되며, 그것은 다니엘서 11장의 마지막 여섯 절의 내적 역사와 외적 역사를 묘사한다. 첫 절인 40절은 이사야서 6장부터 9장까지에서 예시되고, 이어 10장과 11장에서는 1989년에 내적과 외적 역사 속에서 봉인이 풀린 그 메시지가 제시된다. 늦은 비의 메시지의 모든 주요 요소가 그 환상 속에 표상되어 있다.

제10장의 마지막 절들은 제11장의 마지막 절들이 나타내는 것과 같은 예언적 역사를 가리킨다. 제10장은 외적이고, 제11장은 내적이다.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교회는 내적이고, 일곱 인은 외적이다. 제10장의 마지막 절들에서는 다니엘서 11장 45절에서 '그를 도울 자 없이 그의 끝에 이르는' 교황권에 관한 말씀과 병행하여, 교황권이 예루살렘을 향해 손을 들어 대적하고 있다.

그 날에 그는 아직 눕에 머무르리라. 그는 시온의 딸의 산, 예루살렘의 언덕을 향하여 손을 흔들어 보이리라. 보라, 주, 곧 만군의 주께서 엄위로 가지를 찍어 내시리니, 장대한 자들이 찍혀 넘어지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리라. 또 그가 철로 숲의 수풀을 베어내시리며, 레바논은 능하신 이의 손에 쓰러지리라. 이사야 10:32-34.

제10장의 끝은 인류를 위한 은혜 기간의 종결이며, 다니엘서 11장의 끝도 그 지점에서 마무리된다.

그가 바다와 바다 사이에 있는 영화로운 거룩한 산에 그의 궁막을 세우리니, 그러나 그는 그의 끝에 이르고 그를 도울 자가 없으리라. 그때에 네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서 있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리니, 그때까지 민족이 생긴 이래로 일찍이 없던 환난의 때가 있으리라. 그때에 네 백성이 구원을 받으리니,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그러하리라. 다니엘 11:45, 12:1.

제10장은 1절에서 '불의한 법령'으로 시작하며, 화잇 자매는 이를 주일법으로 규정한다.

불의한 법령을 제정하고, 그들이 정한 압제를 기록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사야 10:1

제10장은 다니엘서 11장 41절과 일치하는 주일법령에서 시작하여, 다니엘서 11장 45절의 역사에서 미가엘이 일어나는 것에 상응하며 끝난다.

"두라 평지에 금 신상이 세워졌던 것처럼, 우상 안식일이 세워졌다. 그리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 형상에 절하여 경배하지 않는 모든 자는 죽이라고 칙령을 내렸던 것처럼, 일요일 제도를 존중하지 않는 모든 자는 투옥과 사형으로 벌하겠다는 선포가

내려질 것이다. 이처럼 주의 안식일이 짓밟힌다. 그러나 주께서는 선언하셨다. '불의한 규례를 제정하며, 그들이 정한 대로 압제를 기록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사야 10:1]. [스바냐 1:14-18; 2:1-3, 인용.]" 원고 발표집 14권, 91.

요한계시록 11장의 '큰 지진'은 13절에서 일요일 법령을 상징하는데, 요한계시록 13장의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용처럼 말할 때 그 짐승을 흔드는 그 '지진'과 연결된 이슬람의 상징이 세 가지 있다. 이사야 10장에서는 일요일 법령이 '불의한 칙령'으로 제시되며, 그 위에 '화'가 선포된다. 요한계시록 11장의 13절부터 18절까지의 '큰 지진'에서는 셋째 화의 이슬람이 이슬람을 나타내는 네 가지 상징과, 일요일 법령 때 미국에 가하는 일격과 함께 확인된다. "그 시각에 큰 지진이 있었고," "둘째 화는 지나갔도다.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고" "열방이 분노하였더라."

제10장은 다니엘 11장 41절부터 교황권이 끝을 맞는 45절까지의 교황권을 묘사하고 있다. 다니엘 11장 40절은 제10장의 서술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는 아하스로 대표되는 배교한 교회에 늦은 비의 메시지가 제시될 때 이사야가 40절의 '감추어진 역사'를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제11장의 결론은 같은 역사 속에서 교황권으로부터의 해방을 보여 준다.

여호와께서 애굽 바다의 해만을 완전히 멸하시고 그의 강한 바람으로 강 위에 손을 흔드사 그것을 일곱 갈래로 치시고 사람들로 마른 발로 건너가게 하시리라. 또 앗수르에서 남겨질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대로가 있으리니,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될 것이다. 이사야 11:15-16.

이사야 10장은 같은 역사에 대한 외적 측면이고, 11장은 내적 측면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외적과 내적의 대응이 풍부하며, 이 두 병행되는 장은 이사야를 통해 제시된 셋째 천사의 경고를 나타낸다. 셋째 천사의 경고는 영감으로 여러 방식으로 요약되어 왔지만, 이를 매우 유익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그것이 은혜 기간의 마감과 관련된 사건들을 나타내며 동시에 개인적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이사야 10장은 그 사건들을 다루고, 11장은 그 준비를 다룬다.

은혜의 시기 종결과 환난의 때를 대비하는 준비의 일에 관한 내용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무수한 사람들은 이 중요한 진리들을 마치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는 것처럼 이해하지 못한다. 사탄은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할 만한 모든 감화를 빼앗아 가려고 주시하고 있으며, 환난의 때가 오면 그들은 준비되지 못한 채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 한가운데를 날아다니는 거룩한 천사들이 선포하는 것으로 묘사될 만큼 그토록 중요한 경고를 사람들에게 보내실 때, 이성을 부여받은 모든 이가 그 메시지에 귀 기울일 것을 요구하신다.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는 일을 향해 선포된 두려운 심판(요한계시록 14:9-11)은 모든 이로 하여금 예언을 부지런히 연구하여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받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진리를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고 허탄한 이야기들로 향한다. 사도 바울은 말세를 바라보며 이렇게 선언했다.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훈을 견디지 못하리라.' 디모데후서 4:3. 그때는 이미 완전히 왔다. 대중은 성경의 진리를 원하지 않는다. 그것이 죄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의 욕망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탄은 그들이 사랑하는 기만을 공급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교리의 표준이요 모든 개혁의 기초로서 성경, 오직 성경만을 고수하는 한 백성을 두실 것이다. 학자들의 의견, 과학의 추론, 그들이 대표하는 교회들만큼이나 많고 서로 상충하는 교회 공의회 신조나 결정들, 그리고 다수의 목소리—이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또 모두 합친 것이라 해도—어떤 종교적 신앙의 쟁점에 관하여 찬성이나 반대를 입증하는 증거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떤 교리나 교훈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분명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라는 근거를 요구해야 한다.

사탄은 하나님 대신 사람에게로 시선을 돌리게 하려고 끊임없이 애쓰고 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의무를 스스로 배우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기보다, 주교, 목사, 신학 교수를 자신의 지도자로 삼고 그들에게 의지하도록 이끈다. 그런 다음 이러한 지도자들의 마음을 지배함으로써 자신의 뜻대로 대중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대쟁투, 594, 595.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